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53. 성전을 측량하라.

2014. 01. 05.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 내용을 거의 다 살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르게 깨닫는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0:11~11:2]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1. 지난 시간에 하늘성소와 그 봉사는 시청각교재로 주신 세상의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바르게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성소의 봉사는 두 국면이 있는데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이데, 매일의 봉사는 날마다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봉사가 중심이고, 매년의 봉사는 한 해 동안 회개 속죄 받은 백성들의 1년을 결산해서 모든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봉사, 그래서 성소정결봉사라고 말한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성소정결봉사를 밀러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죄의 세상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므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2300주야 끝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배에서는 아주 쓴 경험이 되어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성전을 측량하라, 즉 성전에 대한 문제를 더 확실히 연구해서 바르게 증거해야 한다고 지시하신 사실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성전을 측량하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언한다는 말과 증거한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행1:8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 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라고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즉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쓴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예언을 맡을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역사적 시점, 곧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을 꿀같이 고대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엄청 쓴 경험을 한 그 역사적 시점에서 다시 예언하는 일을 주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성경적으로 연구하도록 이끌고

성소문제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2. 예, 그렇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요?

답: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12장에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12장에도 10:11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할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제는 11장의 장면들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하시지요. 11장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축량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전에 대한 문제들을 잘 연구하라는 지시로 말씀을 나누었고,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성소정결이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하늘성소봉사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성소정결이 하늘성소의 무슨 봉사가 되는 것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시청각교재로 주신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정결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회개한 죄들을 완전히 없애서 그 흔적이 없어지도록 하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죄짓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잠언을 봅시다.

[잠16:33]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어느 것이 여호와를 위한 숫염소이고 어느 것이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러지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 네 뿔에 피를 바르고 사방에 일곱 번 뿌리고 그리고 다시 성소로 와서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의식을 통하여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회개한 모든 죄들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 모든 죄들을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에게 돌려줍니다. 그것은 이 모든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아사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아사셀은 내어보낸 자라는 뜻인데, 루시퍼를 상징합니다. 죄를 들여온 자가 루시퍼이며 사람들로 죄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아사셀을 광야로 내어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히 죽는 것을 표상하지요. 그렇게 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여졌다고 선포됩니다. 큰 기쁨이 있게 되지요. 이 기쁨의 연장선에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정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완전히 처리되어서 죄 자체가 없어지고, 루시퍼는 정죄되어서 영원히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4. 그러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그런 심판봉사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답: 그렇지요. 두 마리 숫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지요. 그것은 심판의 모형이 되는데, 사실은 아사셀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심판은 피고가 바로 루시퍼인데,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날 때 이미 심판을 받은 결과로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심판은 루시퍼 당사자보다는 이 지상의 루시퍼의 대리자가 누군가하는 것을 드러내는 심판이 됩니다. 다니엘 7:9~12에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심판의 장면인데 거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심판의 피고가 작은 뿔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책들을 펴 놓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두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가 다니엘 7:9~12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록 20:11~15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천년기 이후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심판 장면은 역사적으로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요.

5. 성경에 심판하시는 역사적 때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까?

답: 예, 당연히 있지요. 아모스 3:7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심판의 때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봅시다.

[행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맡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작정된 날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모스의 기록대로 분명하지요. 사실 지상성소봉사에서 심판의 날이 바로 속죄일인 유대 종교력 7월 10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것처럼 예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도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 날이 바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로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밀러가 계산한 그 날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날짜가 되는 것이지요. 그날에 예수께서 하늘성소의 지성소봉사 곧 성소정결봉사를 시작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뿔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제비를 뽑아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어느 것인지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작은 뿔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울이 살후2:3,4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이거든요. 세상은 그것이 진짜로 성경의 하나님의 대리자인줄 알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에 횃불처럼 타는 큰 별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썩인 줄 모릅니다.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 재림 전 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작은 뿔이 피고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속아서 진정한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진리를 땅에 던진 그 세력으로부터 나와서 올바른 진리를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6. 아, 목사님, 결국 성소정결이 심판으로 작은 뿔의 실상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올바른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선포이군요. 성소정결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성소봉사를 하는 것이 결국 세상에 참된 교회를 확실히 드러내어

서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참 교회를 찾으려 하신 조처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촛대는 성소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일곱 교회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성소봉사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며 성소정결봉사, 곧 심판봉사도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 정결봉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면 맨 먼저 교회를 더럽게 하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가려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려내어야 성소를 정결하게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성소를 헐고 매일의 봉사, 즉 성소 첫째 칸의 봉사를 스스로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진 존재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예언적 계시에는 작은 뿔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에서 그 존재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소정결이라는 표현으로 세상에 있는 성소정결봉사를 통하여 여호와를 위한 것과 아사셀을 위한 것을 제비뽑아 분별해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정체를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결하게 하신 은혜를 누릴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사셀에게 속하여 존재를 상실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 시작이 2300주야가 끝날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성소정결봉사를 하는 시기가 끝나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11장 3절 이하로 나가면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11:2절 이하에는 성소정결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계11:2,3]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기록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측량하지만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이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깥마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마당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를 지나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다음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할 때에 계11:2에서 말하는 이방인에게 내어준 성전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뜰도 성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왔으나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상징성이 강하지요. 물론 11장에 기록된 내용이 다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42개월 동안 그 마당을 짓밟습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면 이 이방인의 뜰부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징적 표현으로 성전 바깥뜰을 짓밟는 이방인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42달이라는 기간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 42개월에 대한 기록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까?

답: 예, 같은 기간이 성경에는 일곱 번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두 번, 계시록에 다섯 번입니다. 마흔두 달은 햇수로는 3년 반이고, 날 수로는 1260일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으로 기록된 것은 다 같은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 일곱 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7:25 한 때 두 때 반 때

단12:7 한 때 두 때 반 때

계11:2 마흔두 달

계11:3 1260일

계12:6 1260일

계12:14 한 때 두 때 반 때

계13:5 마흔두 달

여기 열거한 성경구절을 읽어보면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 작은 뿔로 표현된 같은 세력의 행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작은 뿔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지만 성전이 정결하여지기 위하여서는 이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하고 있는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참 성전에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심판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소정결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여 심판하는 그 일은 동일한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전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잘 연구해서 바르게 깨닫고 다시 예언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9. 이 문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꽤 자세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답: 그랬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계10장에 펴 놓인 작은 책이 예언된 바로 그 시대에 연구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의 말대로 우리는 그분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 셈이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10장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히 그 손에 펴 놓으시고 갓다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먹어서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다니엘서를 연구하되 성전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잘 연구하고 다시 예언하도록 조처를 취해주신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문제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0. 성소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교회 외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잘 모르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건방진 태도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늘성소봉사와 관련되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성소와 관련된 계시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주석들을 살피면 하늘성소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주석들은 어떤지요. 꽤 오래전에 제가 히브리서 주석을 몇 권 읽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에 대한 사실은 잘 설명했는데 하늘성소에 대한 것은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순인 것은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성소를 짓게 하고 제사장을 임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28장에서 제사장 위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완성하고 기름을 발라 봉헌한 후에 아론과 그 아

들이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히 8:4)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하십니다. 하늘이 성소라는 뜻이 되지요. 하늘성소를 바르게 알려면 세상에 시청각교재로 만들어주신 모세의 성소와 성소봉사에 대하여 잘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성소봉사에 대한 모형이니깐요.(히8:5) 모세의 성소봉사에 대한 것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소봉사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소 첫째 칸에서 하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것은 속죄 봉사이요. 그리고 1년에 속죄일에 한 번만 하는 지성소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봉사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각교재를 통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성소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도 성소봉사와 지성소봉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속죄봉사와 정결봉사로 구분되는 것인데, 정결봉사는 작정한 날에 시작된다는 것도 가르쳐주지요. 그것이 우리가 설명한 2300주야에 계시된 내용이고, 그렇게 정결봉사를 할 때 성소를 더럽게 한 장본인의 정체를 밝히고 땅에 떨어져 짓밟힌 진리를 회복하여 이것을 교회에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소제도와 성소봉사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퍼 놓인 작은 책을 갖다먹고 배에서는 쓴 경험을 하고 다시 성전을 측량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공부할 때 이미 말씀 드린 것인데, 이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동시대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11. 예, 그때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성소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답: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에게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전에 대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관련해서 십자가와 함께 다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햇불처럼 타는 별로 땅에 떨어진 루시퍼의 공작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성소문제를 아는 것이 구원의 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계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시청각교재로 준 성소, 성전을 폐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설명해준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봉사를 구체적으로 바르게 깨달으려면 성소문제를 공부하지 않고는 완전히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렵지만 잘 이해해서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중에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12.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이야기도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소제도를 주셔서 구원의 도리를 시청각교재를 통하여 알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은 뿔의 세력, 햇불처럼 타는 별로 떨어진 세력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했으나 때가 되어서 깨닫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